

미·일·중·러 특사 외교 마무리... 남북 정상회담 준비 박차

정의용 귀국, 러·중 지지 확인...강경화 방미 평화체제 구축 속도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8명 구성 완료... 오늘 첫 회의 개최

문 대통령의 특사로 중국과 러시아를 잇달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 귀국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와 안정의 모멘텀을 계속 살려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접견 때 인용한 ‘단단한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고 꽃이 핀다’는 의미의 ‘견빙소용, 춘란화개’라는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시 주석이 한반도 상황이 이와 같다면서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중 양국은 정상 차원의 소통과 협력은 물론 다음 주 초로 예정된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방한을 계기로 고위급 안보 전략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

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러시아 방문 기간 만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유리 우사코프 대통령 외교보좌관 등과의 회동을 언급하며 “고위 관계자들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 지지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한반도 주변 관련국들은 물론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을 포함한 국제사회 지지를 적극 받아가면서 곧 있게 될 남북, 미북 간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강 장관은 출국 길에 “(특사단) 남북의 모멘텀을 살려 나갈 필요가 있고, 앞으로 중요한 외교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미간) 여러 레벨에서 긴밀히 조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당초 강 장관은 워싱턴에서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과 16일(현지시간) 외교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스 장관을 전격 경질하면서 존 설리번 장관대행과의 회담으로 일정이 변경됐다.

강 장관은 2박3일 간의 방미 기간 미국

측과 최근 급진전된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남북정상회담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포함한 경제·통상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병균 통일부 장관을 총괄 간사로 하는 총 8명으로 구성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도 이날 완료됐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은 지난 5일 대북특별사절대표단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4월 말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지 꼭 열흘 만이다.

청와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준비위원으로 포진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청와대 안보실의 이상철 1차장과 남관표 2차장, 운영한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대변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준비위원회에 배석한다.

준비위는 16일 첫 회의를 진행하며 매주 또는 격주에 한 차례씩 회의를 열기로 했다. 준비위 산하에는 의제분과, 소통·홍보분과, 운영지원분과 등 3개 분과를 뒀다. /임동욱기자 tuim@연남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핵·통상 등 한미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존 설리번 미국 국무장관대행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을 첫 해외순방 22~27일 베트남·UAE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순방 일정으로 22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을 국빈방문하고, 모하메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제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7일까지 UAE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기간 전 다이 팡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베트남은 수교한 지 25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아세안 10개국 중 교역 1위, 투자 1위, 개발협력 1위의 국가이자, 문 대통령이 발표한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라며 “이번 베트남 방문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본 국토에 올리고 외교 다변화를 향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방문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행해 경제협력을 비롯한 신남방정책 구상 추진과 관련한 논의에 주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에 이어 2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UAE를 공식방문하고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바이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UAE 순방 일정

22~27일 베트남·UAE

24~27일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왕세제와 정상회담, 미래성장 분야의 협력방안 논의

22~24일 베트남 전 다이 팡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협의

이를 방문해 모하메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를 만난다.

김 대변인은 “UAE는 우리나라와 긴밀히 협력하고 아크 부대가 파병 중인 주요 협력 대상국”이라며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중동국가 방문은 두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편,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와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UAE 방문에는 지난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이미 이곳을 방문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행한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수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북미정상회담 6~7월로 연기 가능성

미국의 외교 수장인 국무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이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까지 만들어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남아야 할 난관도 많기 때문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지명자의 상임 인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북미정상회담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북 매카’로 분류되는 폼페이오의 기용이 회담 자체를 무산시킬 것으로 보는 행정부 관료는 거의 없지만, 정상회담 예정 시한인 5월 말 전까지 인준 절차를 끝내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공통적인 시각이다.

통상 상원 인준에 여러 주가 걸리는 데다 아직 백악관이 인준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서류 작업도 끝내지 못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이 신문에 전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정식 임명 전까지는 북한 외무상은 커녕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공식 접촉할 수 없어 차질이 예상된다고 NYT는 내다봤다.

대북 외교라인이 전멸한 상태라는 점도 ‘연기설’에 조금씩 무게를 싣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을 전담해온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돌연 은퇴를 선언했고, 주한 미국대사 자리는 1년 넘게 공석 상태다.

또한, 한국 정부의 특사단이 출간한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북한 정부가 아직도 공식 확인하지 않고 미국과의 직접 외교채널을 가동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회담 지연설의 근거로 제시된다.

워싱턴포스트(WP)도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에런 데이비드 밀러 우드로윌슨센터 부소장은 WP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6월이나 7월로 미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69.2%...3.4%p 올라 리얼미터 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상승 70%대에 육박했다. 안희정 전 총남지사 등 여론 유력 인사들을 향한 ‘미투(Me too)’ 폭로 정국속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주(12~14일)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3.4%p 포인트(p) 오른 69.2%를 기록했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4.2%p 내린 24.0%로 집계됐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1월 2주차(70.6%)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70% 선에 다가섰다. 부정평가 역시 두 달 만에 처음으로 25% 선 아래로 떨어졌다. /임동욱기자 tuim@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구례군 토지면 문수골 3683㎡ 투자성 좋은 1억3천
- 곡성군 삼기면 대지와 전 681㎡ 관주서 30분 내 6천만원
- 원도 약산면 득림리 바다집 2481㎡ 민박집적합 분할가 2억4천

주택 / 원룸 / 아파트

- 장성 심계면 사창리 대지 366㎡ 주택임대 3200만원
- 농성동 대지 156㎡ 집 96㎡ 1층전세 4천안 1억4500
- 월산동 2층 상가주택 땅 106㎡ 건평 117㎡ 1억2500
- 월산동 소방도로코너 2층 상가주택 땅 93㎡ 집 94㎡ 1억2300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투자 / 매도 / 교환

- 양동시장건너 재개발지역 대로변 대지 217㎡ 주택 3억2천
- 영암읍 역리 대로점 준공입지 1702㎡ 금매 2억2천
- 장성 북이면 수성리 전 2136㎡ 전원생활적합 4500만원
- 순창군 북흥면 산 330248㎡(추월산) 3억4천
- 담양 금성면 봉서리 산 61492㎡ 귀촌생활용 3억
- 금남로5가 대로변 북동상업지 2010㎡ 병원 오피스텔용 적합 52억
- 무안군 운남면 내리 전원주택 등 적합 5000㎡ 1억9천
-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전 1663㎡ 도로점 1억3천
- 화순 동면 장동리 땅 213평 건평 60 은행 1억5천 매도·교환 2억5천
- 제주도 서귀포시 발장 땅1100평 건평3층 65평형 엘리베이터 10억2천
- 월산동 무진중부근 원룸적합 379㎡ 소방도 점 4억2천
- 충장로 5가 도로점 상업지 490㎡ 상가적합 7억6천
- 니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등 적합 1억5백만원

상가건물

- 순천만 팬션 대대동 땅 332㎡ 건평 285㎡ 방 8년매출 1억5천 은행 3억 매도 은행포함 6억7천 은퇴자 생활에 최적
- 충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 265㎡ 건평 1001㎡ 10억5천
- 양동 모델·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시설좋은 12억
- 월산동 버스도로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수원동 7층 건물(보증금 6억 월3,200만) 매 75억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
-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
- 산성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생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 500㎡ 매 24억
- 니주시 성북동 1층상가 대 489㎡ 건 322㎡ 매 7억2천
- 양산동 원룸 대 300㎡ 매 7억8천(보안, 월4백만, 인접)
- 오선동(신곡산단) 대 785㎡ 건 600㎡ 매 21억(보2억, 월900만)
- 담양군 수북리 전원주택 대 506㎡ 건 96㎡ 매 3억5천

토지

- 임양동 효천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서구 매월동 대로변 자연녹지 3,600㎡ 매 38억(전시장 물류 사옥 적합)
- 서구 금호동 자연녹지 1,250㎡ 매 20억(카센터, 물류 적합)
- 서구 서창동 대지, 전 1,760㎡ 매 13억5천
- 광산구 소촌동 자연녹지 3,800㎡ 매 2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비아동 자연녹지 6,130㎡ 매 3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우산동 상업지역 코너자리 대지 612㎡ 매 12억
- 광산구 운남동 대로변 자연녹지 2,100㎡ 매 32억(전시장 사옥적합)
- 남평읍 상곡리 전,임야 9,240㎡ 매 8억4천(전원주택부지 적합)
- 도곡면 원화리 계획관리지역 나대지 5,355㎡ 매 33억(요양병원적합)
- 진원면 선적리 재1종주거 대지 830㎡ 매2억6천
- 담양군 대전면 선성리 1종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창고적합)
- 정음시 산성동 전 3,300㎡ 매 4억5천만원(전원주택, 가든식당 적합)
- 고흥군 송림리 전 17,000㎡(약 5천평) 매 3.3㎡당 252만원 (토목공사완료, 바닷가토지, 남동향, 팬션, 카라방, 전원주택, 대양광적합)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정덕동 롯데마트 부근

점포임대 - 구례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지리산 온천 정문 앞
- 1층 - 식당(65평), 커피숍(55평), 편의점(55평), 지하 - 노래방(85평)
- 호텔건물 내 있음, 비품권리금없음
- 모든점포 분할임대가능.
- 임대료 - 협의, 즉시 입주가능
- 문의. 010-3605-5000